

4.13 선거 RUN·RUN·RUN

김윤덕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김윤덕 의원이 12일 중화산동에서 '더불어캠프'라는 이름으로 선거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을),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 갑),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병)을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김 의원의 유년시절, 학창시절, 지역구 활동 사진 등이 전시됐고 진행은 당원, 지지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날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더불어민주당과 저 김윤덕을 선택해 주신다면, 전북의 재목으로 우뚝 서 더 많은 예산 더 나은 정책, 더 강한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강한 전북을 비한다면, 미래의 정치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8년간 전주에는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재선의원이 없었다"며 "힘있는 재선의원이 돼 전북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김 의원은 "주말임에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하는데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정영수기자

이춘석 예비후보 "휴대용 3D 스캐너 사업 유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 예비후보)은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을 통해 함열읍 다승리 제4산업단지(구 의료산업)에 휴대용 3D 스캐너 개발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3D 스캐너란 3D 프린팅을 위한 전방산업으로 소재개발과 함께 3D 프린팅 분야의 3대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최첨단 산업이다.

3D 스캐너가 익산에 유치될 경우 신소재와 융복합산업에 특화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 32억원 등 총 47억원이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은 전국적으로 3개 지역만 선정하는 사업으로서 첨단산업을 익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박민수 예비후보 "여론조사 조작 주장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원주진무장)는 일부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이와관련해서 선관위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에 따르면 일부 예비후보는 박 의원이 지난 3월 11일 뉴스이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로 발송한 것에 대해 수차례의 문자 메시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마치 여론조사를 조작 왜곡한 것처럼 홍보했다.

박 후보는 한 언론 매체가 밝힌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여론조사를 사실 그대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을 뿐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전승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매체에서 실시해 3월 10일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공표돼 있어서 누구나 다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 후보는 "더민주 경선 여론조사 결과란 표현은 뉴스의 경선여론조사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단순한 위양스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후보가 이미 수회에 걸쳐서 13-14일 경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대부분 경선일자를 알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민약 다른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경선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최종 확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을 것이다. 민약 단순한 표현을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송한 예비후보는 모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알려드립니다

본보 지난 7일자 1면 '제20대 총선 공식 출정 국민연당 정동영 예비후보 제하의 기사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6년 3월 1주차(2월 29일, 3월 2~4일)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증한 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현직·전직 국회의원... 전직 익산시장... 전직 경찰서장까지

무계감 있는 후보들 '격돌'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④ 익산 갑

익산 갑은 모두 9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세부적으로는 새누리당은 김영일(50), 임석삼(58) 등 2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53), 한병도(48) 등 2명, 국민의당은 정재혁(58), 배승철(64), 이한수(55), 고상진(42) 등 4명, 민중연합당 전권희(45) 예비후보다.

익산갑은 과거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뚜렷하게 이념지지에 대한 보수적인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출범한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지 관심이 다.

또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예비후보의 3선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이 후보는 8년간 역량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도민과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고 3선 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포섭을 공략 중이다.

이 예비후보는 익산 KTX선상역사, 국

립박물관 승격, 익산국토청 이전 백지화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현역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현재 더민주는 단수 공천설이 흘러나왔지만 불과 30여일을 남겨두고 지역구를 옮길수 없다는 후보들의 반발로 결국 경선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후보와 한 후보는 19대 총선 경선에서도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익산갑은 국민의당을 통해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많아 혼전 양상이다.

국민의당은 어느 누가 앞서나가고 있는 1강(強)구도가 아닌 다중(多中) 상태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한수 전 익산시장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가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시행 계획했던 '숙의(熟

더민주, 이춘석 3선 도전 한병도 전 의원과 경선

국민의당, 후보들 많아 1강 아닌 다중 접전 예상

전 민주노동당 비서실장 전권희 예비후보도 출마

議)배심원단체(당원 유권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후보들간 토론이나 연설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면접 여론조사로 전환되면서 정치신인들이 다급해졌고 일부 예비후보들의 진영은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익산 갑 후보군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중량감이 느껴진다.

새누리당 김영일 예비후보는 (전)서울 강북경찰서장, (전)재정경제부 금융정보원을 지냈다.

또 임석삼 예비후보는 (전)한국폴리텍 대학 김제캠퍼스 제6대 학장을 지냈고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전)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밀착형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정재혁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전)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총괄실장과 (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중앙 정치의 정통 코스를 거쳤다.

배승철 예비후보는 (전)제9대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등 의정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밝은 경쟁력있는 후보라는 평가다.

이한수 예비후보는 민선 4, 5기 익산시장과 제 6, 7대 전북도의원등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높은 대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 정치인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유망 인사로 분류된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유성엽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으로서 활동 중이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중연합당 전권희 예비후보는 (전)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중량감을 키워 왔다.

/신광영기자

“최규성 컷오프 즉각 철회하라”

더민주 김제 당원들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제 지역 당원들이 중앙당의 공천 배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병진 도의원 등 김제지역 시도위원과 당원들은 지난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지역 당원들은 최규성 의원에 대한 당의 공천 배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표적공천이자 정치적 학살"이라며, "중앙당의 이번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중앙당의 결정은 총력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총선승리를 바래왔던 지역민들과 3만 당원들에게 중앙당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도 국민의당과의 싸움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정치의 망명이자 전북도당의 구심점인 최규성 의원의 경선 출마조차 막는다는 것은 전북 총선 압승을 중앙당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다"고 했다.

또 그는 "공관위 면접 당시 두 후보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경선을 해 더불어민주당의 붕괴를 일으켜 달라'고 공관위 스스로가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최 의원을 공천 배제한 것은 답이 어려운 시기에 최 의원과 함께 당을 지켜왔던 3만 김제당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이상직 의원 무공수훈자회 감사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을)은 지난 11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창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장은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보훈단체 관련 법안 통과를 비롯해 보훈단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이에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제지역 당원들이 중앙당의 공천 배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전북 방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동학혁명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일자리해방정책과 신인재양성' 국민의당 민생투어 3차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대표와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 김관영(군산), 유성엽(정읍교향), 이기동 후보(전주갑), 김연근(익산을) 등 전북지역 예비후보 전원이 참석했다.

안 대표는 "새만금 신항만을 조성해 동북아 허브항으로 성장시키면서 배후지인 전북에 첨단제조, 조립, 가공 등 중소기업

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을 전주혁신도시에 이전할 때 관련 금융기관들이 함께 이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재경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견제받는 인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 인제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인재들을 교육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은 "국민의당이 전북도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자리 해방정책을 위한 공적임금법을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혀 전북지역 예비후보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신광영 기자

재보궐 경선 세부사항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직, 이하 선관위)는 지난 11일 4.13재보궐선거 경선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익산시장과 광역의원 익산시 제4선거구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을 의결하고 선거인단 수,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일 공고, 경선후보자 기탁금, 선거일 등을 의결했다.

관리당원 현장투표 선거인단은 익산시장 1,658명, 광역의원 익산시 제4선거구는 1,432명이다.

/신광영 기자

정의당, 지역구 63곳 공천 후보자들 발표

도내엔 군산 조준호 등 3명

정의당이 13일 심상정(경기고양갑) 대표 등 전국 63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지난 6~11일 당원 직접선거를 통해 63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선출 절차를 진행한데 이어 12일 전국위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인 심상정 상임대표(경기 고양갑), 나경채 공동대표(광주 광산갑), 정진우 원내대표(경기 안양동안 을), 노호진 전 대표(경남 창원성산), 조준호 전 대표(전북군산) 등의 공천이 확정됐다.

조준호 전 대표(전북 군산) 강상구 대변인(전북 김제부안), 김제남 의원(서울은평), 박원석(경기수원정) 의원의 공천도 결정됐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서울 강서병에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 노원병에 주희준 지역위원장을, 인천 계양구에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을, 울산북구에 조승수 울산시장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

또 전북익산시에 권태홍 전 사무총장을, 인천 중동송진강화에 조택상 전 인천동구구청장을 각각 공천했다.

정의당은 이날 63개 지역구 공천을 발표 한데 이어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다음주 초 전국단위의 2차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성주 기자